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허태정 시장 민선7기 최우선 정책 '청년 일자리'

대전희망통장 청년들과 공감토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조성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7기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허 시장은 13일 오후 7시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청년희망통장 참가자 400명과 함께 진행된 워크숍 공감토크에서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덕특구와 원도심 등에 퀸역 별로 특성화된 스타트업 2000개를 육성해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

혔다.

또한 허 시장은 "세종시 전입인구 40%가 대전시민인데 가장 큰 이동사유가 주택 문제"라고 말하며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희망 주택 3000세대를 목표로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시도 노력하겠지만 청년들도 시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청년참가자들로부터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감토크에 청년특별법으로 참여한 최현철(37세)씨는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며 "주택 공급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패널인 서동윤(20세)씨는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다 보니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실업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감토크와 더불어 대전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희망통장사업에 평균 6,31의 경쟁률을 놓고 선정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자 의무사항 등 약정서 작성과 함께 사업설명회도 개최됐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후 이자 포함해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전시는 지역 내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더불어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 예방과 이직률을 최소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道, 위임사무 평가 아산시 · 서천군 종합 1위

회복지 등 153개 지표 평가··· 우수시 · 군에 재정인센티브

군부에서는 태안군이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아산시와 서천군에 3억 원을, 당진시와 금산군에는 2억 원을, 논산시와 태안군에는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 · 군 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도 위임사무, 도정 주요시책 등으로 한정해 실시했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시 · 군과 협력 · 상생 관계를 강화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한 기자

## 대전시, 부동산 불법중개 '떴다방' 등 집중 지도단속

대전시는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대전 도안갑천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하려는 속칭 '떴다방' 세력들의 각종 불법&#8231; 불법 행위로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떴다방' 등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도안갑천지구 3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를 일컫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각종 불법 · 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 · 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 · 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꿈나무 장학회, 이문고등학교 장학금 전달식 가져

꿈나무장학회(회장 유미자)는 지난 7월 13일 대전 이문고등학교(교장 김동춘)와 장학체결식을 맺었다.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르며 모범이 되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이학교 2학년 7반 양은지학(3학년)과 3학년 반 송성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했다. 장학체결식 장에는 장학회원인 김덕기(대전시교육청) 김가영(시니어유성크럽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 “사회적 약자 위한 행정력 집중해야”

## 충남도의회 문복위, 도 복지보건국과 도내 4개 의료원 업무보고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3일 열린 도 복지보건국과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빙곤증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문복위 위원들은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강화를 통한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과 예방부터 치료까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으로부터 충남 복지 연구재단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친 만큼,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로드



맵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연 위원장은 “복지를 확대해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빙곤증

김기영 위원(예산2)은 “2021년 까지 5개 시군 장애인 복지관을 신규설치하고, 건립 시기에 맞춰 도립복지관을 기능 개편하기도 돼 있다”며 “이에 대한 추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재활병원은 재활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권역 내장애인 의료 생활시설과 보건소 재활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재 건립부지 확보 주체인 아산시의 행·재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 아산시의회, 유관기관 방문… 유기적 협력 당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아산지사·아산경찰서·아산세무서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지난 13일, 관내 유관기관을 찾아 현안 청취 및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애 의장은 비롯한 전남수 부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지사장 오두용)를 시작으로 아산 경찰서(서장 김황구), 아산세무서(서장 김민기)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애 의장은 제8대 아산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했으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상황과 문제 점을 직접 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세종시·시민주권

### 특별자치시 타운홀 미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운영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1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시정 3기 맞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분권 모델로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비전으로 세웠다.

시장과 시(市)가 보유한 마을 단위의 조직, 일법, 재정, 계획, 경제 등 5대 분야 권한을 읍면동 단위까지 나누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구체적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자 이번 미팅이 마련됐다.

시민 참가자(토론회) 모집에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결과 총 77명이 신청했다.

한편, 토론자는 아니지만,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이번 미팅을 참관할 수 있다. 세종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ejongstory](http://www.facebook.com/sejongstory))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시정 3기는 모든 정책의 검토, 계획수립, 예산결정까지 시민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 2017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 자치단체 성과공유대회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전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행정실무자 양성과정 교육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협력망회의를 지난 12일 센터 5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일자리협력망회의에는 대전복지재단,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효사랑주야간보호센터, 세사랑실버케어요양원 등 7개 업체와 직업훈련 실무자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복지행정실무자 양성과정 직업훈련 교육생들의 취업처 확보 방안 논의 및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업연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새일인턴제,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회복지행정실무자 양성과정 교육생들이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구인처와 구직자들의 정보 공유를 통한 맞춤형 채용·구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 연계를 약속했다. 송병배기자



당진시의회 의원 및 의회공무원 의정연수

일시: 2018. 7. 11 ~ 13

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전캠퍼스

## 당진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국내 의정연수 실시

### 3일간 총 3회 과정 10시간 교육으로 구성, 전문성 있는 의회 운영 기대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제3대 시의회 개원을 맞아 강릉시에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역량 강화 국내 연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선의원 9명을 비롯한 13명의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제3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의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의사운영 실무기법까지 총 3개 과정 1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실전사례와 예산·결산 심사기법의 교육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초선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릉시 정동진과 통일공원, 경포해수욕장을 방문해 해양관광재단사업분야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비교 시찰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의정연수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연수를 마무리하며 시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30여 명 전체가 3일간의 교육과정 중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과정별, 사례별로 심도 있고 건설적인 토론

을 진행해 향후 의정활동의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전 연수와는 다르게 차별화를 두었다.

김기재 의장은 “제3대 당진시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고 개원과 동시에 하반기 의사일정이 빠듯하게 구성돼 있어 이번 연수를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위주로 준비했다”면서 “باء신 외종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님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발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제3대 당진시의회가 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천안시의회, 라돈침대 사태의 조속 처리 촉구

### 제212회 임시회 열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모든 노력 취할 것 다짐



13일 오후 2시 천안시의회(의장인치경)에서 제212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박남주 의회운영위원장의 요구로 열렸으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되었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라돈침대 사태의 안전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정부 건의문이 채택된 것이다. 천안시에는

인 육종영의원 등 24명이 참여하였고, 육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우체국 직원까지 동원하였으나 별다른 소용이 없었고, 해당 주민들은 방식을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라돈침대와 관련하여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 했고, 확인 결과 약 4만1천개 중 6천개만 해체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사에 방치된 라돈침대는 총 약 1만9천개, 당진향에는 약 1만6천개가 방치

천안=김민성기자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라돈침대는 세계보건기구(WT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방폐장에서도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민들은 국가 이를 해결해주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처리방안도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민들은 국가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자장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채택된 해결 촉구 건의문에서는 “회수된 매트리스에 대해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밟힐 것” “처리과정에서 2,3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을 해소 할 것”, “정부는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수렴하여 해체장소를 지정할 것”,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일반상품의 방사능 관련 기준을 확립할 것”을 내세웠다. 이에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노력을 취할 것을 다짐하였다.

천안=김민성기자

## 제8대 예산군의회, 첫 의원간담회 개최

### 제242회 임시회 대비… 집행부 안건 청취 등으로 진행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12일 10시 문화강좌실에서 의원간 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8대 예산군의회 의원들의 첫 의원간담회로 제

위원회 소관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승구 의장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소공인 공동협업 과제의 이색적 평가회 개최

### 금신인삼 협업 통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길

#### 2018년 7월 12일

(재)금신인삼제약이 연구소(소장 차선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1일 공동협업 활성화를 주제로 소공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최종 선정한 과제를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비교적 연세가 있는 족석1팀의 발표자로 나선 산산약초 이인숙 대표는 종이에 깨알같이 수기로 적어놓은 발표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소비자 신뢰향상과 자발적 품질관리,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협업팀의 구체적인 계획과 업무분장까지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공개발표 평가회는 이색적으로 발표자와 평가위원들만이 참석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소공인 협업그룹 4개팀 50업체가 참여하여 연구소의 각 부문 전문가들이 과제에 대한 평가와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과제 발표가 진행되고 수정 보완에 대한 의견이 도출될 때마다 환호와 응원 속에서 색다르게 진행되었다.

이 날 소공인 발표자들은 협업에 대한 어려움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과제선정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협업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과제들을 발표했다.

특히, 식품1팀의 천년홍삼김한나 실장과 족석2팀의 운우리 홍삼김진영 대표는 과제 추진을 위해 소속 협업팀에서 전문

이 될 것으로 종평했다. 이 날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발표자들과 참여한 소공인들에게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사업타당성과 실용성 부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지성훈 센터장은 “15년 센터 개소 후부터 금신인삼 소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소공인 협업화를 준비해 왔으며, 어렵고 생소했던 협업 개념이 소공인간 상생 필요성으로 인식 전환되면서 2017년에는 소공인 협업 그룹 5개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장정보와 유통정보의 습득 등 기본 역량을 확보하고 올해에는 협업화 교육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업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평가에서 수정 보완된 과제들은 9월까지 시제품 제작 완료를 통해 제37회 금신인삼 축제(10월 5일부터~10월 14일까지)에 참여하여 펑업스토어를 오픈하여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되며, 11월에는 소공인 제품 판매 공동프로모션에 출품하여 소비자 및 바이어 빌글을 통해 협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선우 연구소장은 오늘 발표한 과제들마다 일일이 종평하며 모든 과제들이 차별화되고 신선했다며 지역산업과 금산인삼산업의 성장발전에 초석을奠定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주연기기자





# 천안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 추진

천안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대규모 협의회에 따른 혼란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업체의 제안을 통한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곳의 실시계획인기를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현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시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근린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협의회 난개발 및 환경파

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비가 2조원에 육박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석공원의 경우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공고로 7개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

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봉공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말까지 협약체결과 함께 토지보상금을

예치 받아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

가와 토지보상에着手한다.

일부에서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일부 공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m<sup>2</sup>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자체화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비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폐순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덕환 산림녹지과장은 "민간 개발로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익과 사익이 대립해 발생한 도시공원 관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거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풍호기자



## 아산폴리텍대 아산지역 고용·취업 포럼 열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장우영)는 지난 12일, 2018년 충남아산지역 고용·취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는 이창규 아산시부시장, 김영애 아산시시의회 의장, 박종덕 충무회 회장 등을 비롯한 충무회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포럼은 아산캠퍼스와 충남 아산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역할을 모색하고, 아산캠퍼스와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우영 학장은 "충남 아

산지역사회 리더 모임인 충무회 포럼을 아산캠퍼스에서 갖게 돼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유지함으로써 아산캠퍼스가 지역 사회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포럼은 마친 회원들은 장우영 학장의 안내로 향후 충남아산지역 직업교육의 하브가 되어 줄 '혁신기술센터(8월 준공 예정)'를 비롯한 학교시설을 견학했다.

이산=리량주기자



## 농림축산식품부-aT 태국 외식시장 공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외식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2018 방콕 프랜차이즈 박람회(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피자마루'나 '서래갈매기' 등과 같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목적과 '점자떡볶이&치킨'이나 '왕빈자삼과전' 등과 같이 새로이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브랜드 등 총 8개의 프랜차이즈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태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식음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소비가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한국 식품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미 25개의 국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태국에 진출해 20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외식브랜드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개최된 이 박람회에서 '서래갈매기'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어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송병배기자

## 당진 우수농산물 알리기에 구슬땀

당진시, 해나루쌀 판촉행사, 품목별 연구회는 홍보판촉전



당진시와 지역농협, 농업인들이 당진의 우수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13일 어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홍보판촉행사를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와 신평농협 관계자들은 상반

기 수도권 지역에 이어 13일 경남 진해와 통영, 구미,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매장에서 해나루쌀 홍보판촉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4월 롯데마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매장에 해나루쌀이 입점한 이후 올해 7월 현재까지 약 960톤의 해나루쌀이 판매됐는데, 이번에 판촉활동을 벌인 4곳은 모두 판매량 상위 10위(구미점 29, 사상점 3위, 진해점 8위, 통영점 10위) 안에 드는 곳이다. 이날 판촉행사에서는 경상지역 소비자들의 해나루쌀 이용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홍보용 쌀을 나눠주며 뛰어난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주력했다.

한편 같은 날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당진지역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도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판촉전을 열었다.

이날 판촉전에서는 해나루쌀을 비롯해 황토감자와 둥근 마, 양파, 파리고추 등 품목별 연구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32종의 우수농산물이 판매됐다.

당진=최근수기자

## 철도공단 공공부문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 취득… 안전문화 정착 초석 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부문 최초로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적 관리방법이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 간의 합의를 거쳐 올해 3월 제정된 국제표준으로, 단체표준에 머물러 있던 OHSAS 18001을 대체하는 새로

의 안전보건 경영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그리고, 5월에는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사동수 구성은 원칙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했으며, 이 운영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의결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오세영 안전품질본부장은 "ISO 45001 인증은 전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모든 철도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청양군 6차산업화는 우리 손으로

### 농업인학습단체 6차산업화 워크숍 열려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동안 부안 모향해나루 기족호텔에서 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회장 신병철)와 생활개선회·청양군연합회(회장 강영남)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학습단체 6차산업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날 워크숍 특강에서는 윤명혁(ABC 농업비지니스) 전문강사를 초빙해 6차 산업 농업분야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기법 및 관련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오디와 누에 활용한 전통 체험마을, 유유마을을 방문해 6차산

업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농업인학습단체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를 가졌다.

신병철 회장은 "농업인학습단체가 6차산업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모두가 노력해 청양군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해 밝은 미래를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양=정상범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온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건양대 협동창의형 교육·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 캄보디아 4년째 현지 봉사활동



건양대학교(총장 정연주) 협동 창의형 교육·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현지 해외교육봉사단 '어꾼 4기' 팀을 파견해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단은 해외 취업계층을 위한 해외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를 위한 봉사·도전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일본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4년째 캄보디아

김성구기자

세종시, 손권배 환경녹지국장 주재

## 미세먼지 대책 촉구회원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3일 보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네이버 '미·대·족(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페회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 시의 미세먼지 대책 소개 ▲ 미·대·족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 검토결과 설명 ▲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위원 선출 ▲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

세종=김태선기자

## IWPG, 세계여성인권회복 캠페인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조백리)는 지난 10일, 대전둔산동 샌마리공원에서 '한기총의 여성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세계여성인권회복 캠페인'에 나섰다. 가

두 행진은 IWPG 회원 및 대전시민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개종을 강요받아 숨진 故 구지인여·27세 씨의 넋을 위로하고자 지난 2월 IWPG가 마련한 분향소를 놓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 장례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IWPG를 고소 고발한 사실을 규탄하고, 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IWPG 윤현숙 대표는 성명을 통해 "목회자들이 신체적 압

자인 여성을 납치 갑급해 개종을 강요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한기총은 이를 북인하고 등조하고 있다"며, "이런 반인권 한기총이 강제개종으로 사망한 망자의 영혼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백리 지부장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종교단체가 망자의 어울한 죽음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적법 절차를 거쳐 분향소 설치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여성단체를 고소·고발한 사실은 망자를 두 번 죽인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제개종 여성인권유린 즉각 중단과 한기총 해체"를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개종을 강요받아 숨진 故 구지인여·27세 씨의 넋을 위로하고자 지난 2월 IWPG가 마련한 분향소를 놓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 장례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IWPG를 고소 고발한 사실을 규탄하고, 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효종 영릉(寧陵), 휴관일 없이 6주간 특별개방

여름 휴가철(7월16일~8월20일)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에도 관람 가능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류근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하여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6주간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여주에 있는 효종대왕릉인 영릉(寧陵)과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특별 개방한다.

이번 특별 개방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여름 휴가 기간 중 휴관일인 월요일에 효종대왕릉인 영릉(寧陵)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새로 개관한 세종대왕역사문화관도 휴관일 없이 함께 개방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다.

당진시, 발암물질 논란 고혈압 치료제 적극 대응

## 대상 환자 파악 및 처방 안내로 시민 피해 최소화

당진시 보건소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밸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된 115개 품목 판매중지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병·의원과 약국에 조치 방안을 안내하는 등 환자 피해와 진료 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소는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

다면, 세종대왕릉인 영릉(英陵)과 세종·효종왕릉 간 연결되는 '왕의 숲길'은 원래대로 월요일에 개방하지 않는다.

세종대왕 영릉(英陵)은 유적종합 정비공사로 인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람 제한, 봉분이 있는 능침구역만 효종대왕 영릉(寧陵)과 연결되는 '왕의 숲길'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세종대왕릉인 영릉(英陵)과 효종대왕릉인 영릉(寧陵), 이 두 영릉이 있는 경기도 여주는 수도권과 지방을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여름 휴가철에 유동 인구가 많으며, 지난해 여름 휴가철 특별개방 기간에도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조선 17대 임금인 효종대왕은 재위 10년 동안 군제를 개편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복구하는데 온 힘을 쏟았으며, 경제적으로는 대동 범을 펼쳤고, 상평통보를 널리 사용 토록 하는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는 세종대왕과 효종대왕 그리고 조선 왕릉에 대한 이해를 돋고, 세종대왕께서 후손에게 남긴 훌륭한 업적들과 그 업적의 바탕이 된 애민 정신을 느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되어 있다.

유적종합정비공사로 인해 세종대왕릉은 이번 특별 개방에서 제외되었으나,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통해 세종대왕릉을 보지 못하는 관람객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기족과 친지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공주시, 세계축제협회 손잡고 금강백제권역 알린다

공주시, 대전광역시, 부여군, 익산시가 속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9권역(금강백제권역)이 세계축제협회와 손잡고 금강백제권역 알리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익산시에서 열린 금강백제권역 월례회의에 방문한 제프 커리스(Jeff Curtis) 세계축제협회 의장, 요한 몰렌(Johan Moerman) 로테르담 축제공사 총감독, 마리 미체스키(Marie Myschatzky) 멘마크 컬처나이트 총괄 매니저, 정강환 배제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 등 국내외 축제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를 둘러보고 세계축제협회와 연계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홍보와 금강백제권역만의 머리를 특화한 '금강 식후경' 브랜드의 효과적인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대덕구, 저출산 극복 위해 나서다

## 도전 아빠 육아골든벨 &amp; 물놀이 체험전 개최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획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대전

0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령시, 본격적인 여름피서철 맞아

## 피서철 물가안정 캠페인 펼쳐

보령시는 13일 개장한 제2회 보령마드축제를 비롯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 행위 등의 원천차단을 위해 피서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소비자교육증진회 보령시지회(회장 박승규)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피서철 바가지요금 극복, 친절한 서비스, 물가안정 적극 동참 등 부당 상행위를 균열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확산해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보령=김태선기자



**당진서, 중·고등학생 대상 여성 악성 범죄 근절 교육**  
당진경찰서(당진경찰서장 최정우)는 여성의 불안감을 대 여성 악성 범죄 근절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당진중학교 등 중·고등학교 방문, 성·데이트 폭력 등 대 여성 악성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주소방서,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3위**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가 지난 13일 순천향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2018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았다.



**금산소방서, 착한어린이집 소방서 견학·안전교육**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12일 착한어린이집 원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서 견학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19 신고 요령, 화재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및 물소화기 체험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오정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저소득층에 방충망 지원**  
대덕구 오정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박희숙/이하 바르게)는 14일 저소득층 10가구에 방충망을 직접 설치해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바르게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여름철 무더위와 해충에 취약한 10가구를 선정해 방충망 크기를 실측하고 제작한 후 직접 시공까지 했다.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및 이력제 합동 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16일부터 8월14일까지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평, 이하 '농관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 8월14일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 위주로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인근 식당과 정육점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위주로 특별 단속한다.

또한,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쇠고기: '09.6. / 돼지고기: '15.6.)로,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한다.

농관원·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한

편,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 세종소방 3교대 근무 전면 시행

### 신규 37명 현장 배치…11월 20명 추가, 근무여건 개선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16일 신규 채용인력 37명을 현장에 배치, 전면 3교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준희 시장의 안전도시 구현 정책에 따라,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으로 올해 소방 인력을 확충하는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총정원 396명 현원 339명 규모로, 고교근무자 250명 중 21.6%(54명)만 3교대를 시행하고, 나머지 78.4%(196명)는 2.5교대 근무형태로 개인별 업무부담이 높았다.

3교대 근무제는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 대기조로 편성, 직원들이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운영된다.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은 "3교대 전면 실시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첨단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월 중 올해 채용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근무여건을 한 층 더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 교육훈련

###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여성의용소방대원 대상 실시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3일 동남여성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남여성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본 인명구조술 등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AED사용법 등 실기교육 및 실습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중 119수호천사는 총 17명으로, 지역사회와의 대규모 죽제, 행사장, 마을회관 등 평소 소방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곳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해 활발한 교육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 전문능력 강화를 통해 심폐소생술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최명순 동남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풍호기자

## 서산소방서,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 백만원

###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 양보하지 않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냉방기 사용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 각별한 주의 당부

실외기 전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으로 설치한다. ▲둘째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 연결부 전선의 헤손 어부 등 상태를 확인하고 바닥에 설치된 방진고무가 부식 되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셋째 실외기 후면의 누적먼지나 벽체 사이의 낙엽 등 이물질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실외기 주위에 불에

触及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

소방 관계자는 "열기를 내뿜는 에어컨 실외기 주변은 작은 담배꽁초 하나에도 연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

### 으뜸정이 문화의 거리서 청소년이 직접 도박문제 예방 활동



화 중인 청소년들이 사전에 ▲청소년 지원봉사 교육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수료 후 청소년 진료요원으로 참여해 직접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당일 캠페인에서는 도박에서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일깨우기 위한 퀴즈 게임과 도박문제 예방 퀴즈,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 검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제공됐다.

대전센터 김세진 센터장은 "대전센터는 꿈자립교육복지네트워크와 함께 대전지역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도박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예방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범죄 예방 불법카메라 점검 실시

### 예산경찰서, 취약시설 공중화장실 및 텔의실 등 대상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지난 11~12일 덕산면 소재 리솜스파캐슬에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민은 서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피서철이 시작되는 7~8월까지 대형 물놀이 시설을 비롯한 디중이용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범죄 발생 시 엄정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IT챌린지 대회 우수상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9일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개최한 제1회 대전 장애인IT챌린지 대회에 정보화교실 이용자와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용자들은 단순히 수업수강보다는 경험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회에 출전해 이용자들이 보다 넓은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 참여했다.

대회에 수상한 A이용자(지적장

송병배기자

# 대전교육청, 2018 대전교육 정책과제 공모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대전시민과 대전교육가족 모두 대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대전시민과 대전교육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2018년 대전교육 정책과제(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제10대 설동호 교육감 공약이행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과 협력의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전시민 또는 대전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국민공무원제인방) 또는 팩스(042-616-8149)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들은 제10대 설동호 교육감 공약이행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내·외부위원회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5명(각 10만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신경수 기획조정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전교육은 미래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관련 의견을 제안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교육, 소통과 협력의 대전교육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2018 학교흡연예방사업 관계자 연수

충남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심신회복 통해 자긍심 높이고자 마련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3일부터 2일간 경상남도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보건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흡연예방사업 교사동아리 회원 등 32명을 대상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 관계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보감촌에서 제공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업무담당자의 심신회복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다.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723교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학교현장의 의견청취와 해결방안 제시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 내실화를 위해 흡연예방 공모전(글짓기, 포스터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운영, 교사동아리 운영 발표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산교육지원청, 유아사랑 유아축제

유아의 창의 인성 함양 및 문화적 소양 기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지난 13일 송산중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당진교육지원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은 지난 13일 송산중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 태안 원북초, 생존수영교육 실시



태안 원북초(교장 두혜주)는 13일 분교생을 포함한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실제로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처하고, 물에 빠졌을 경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수상안전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학생들에게는 이

본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함으로써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제적 사고 대처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처음엔 물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물에서도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북초는 학생들의 물놀이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위험에 대한 대처요령을 익혀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태안=김정한기자

## ‘내 꿈을 찾아서, 비전 UP’ 희망캠프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관내 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Wee센터는 지난 12일 서천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내 꿈을 찾아서, 비전 UP” 희망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전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로 이뤄졌다.

서천청 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이번 캠프의 주요내용은 ▲술빚줄 놀이 ▲미디어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이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과 빚줄을 이용한 술빚줄 놀이, 미디어 프로그램, 오븐을 이용해 제과를 직접 만들어보는 요

리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신경희 교육장은 “희망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힘양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학생들이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학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천=김성구기자

## 금산교육지원청, 테마가 있는 학부모 교육

### 소통 하는 테마가 있는 학부모 교육 ‘아빠~ 두 시간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7월 14일 금산볼링장에서 중학생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볼링을 치며 소통을 하는 테마가 있는 학부모 교육 ‘아빠~ 두 시간만’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중학생 자녀와 아버지의 소통 및 친밀감 향상을 시키고자 진행되었으며, 볼링을 치면서 자녀와 아버지에 대한 15분 15답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금산여자중학교 홍00 아버지는 “15분 15답 질문지를 작성하면

서 자녀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해 주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 해야겠다”고 하였으며 “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다음에 또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참여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양정숙 교육과장은 “청소년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금산=주연기자

## 지구별 어린 왕자들의 행복한 인문학 캠프

### 예산교육지원청, 초등 작가되기 프로젝트 참가하고 있는 초등학생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금)부터 오는 14일(토)까지 1박 2일 동안을 5월부터 초등 작가되기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초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예산구구별 그림책 마을과 국립 세종도서관에서 인문학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문학 캠프에서는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책을 쓴 천효정 아동문학 작가를 직접 만나서 궁금했던 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금산지구별 그림책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자유롭게 읽고 책에 관련된 음악과 영화를 보면서 소중한 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들으며 하룻밤을 자게 된다. 또한 인근

예산=양성업기자

## 1학년·5학년 담임교사 공동교육과정 협의회

### 함께 키우기 위해 함께 연구하는 청양 동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열정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은 지난 12일 청양교육지원청과 청송초등학교에서 관내 1학년, 5학년 담임교사 공동교육과정 협의회를 실시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학부력 신장, 소규모 학교 교사 간 동료성 형성으로 개방적인 교사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등 6년역으로 공동교육과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학년 담임교사 협의회는 현장 선생님들이 동학년 담임교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수업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4월부터 시작되었다.

동학년 담임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동학년 공동교육과정 협의회는 수업,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 동학년에 현안 문제와 관련된 주제 중심 나눔으로,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소규모 학교 중심 토론 수업 등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민과 나눔을 함께 하는 시간이다.

이번 1학년, 5학년 담임교사 공동교육과정 협의회는 1학년은 한글 미해득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방법 공유 및 2학기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나눔이 이루어졌다. 5학년은 지난 5월 주제였던 소인수 학생 사회과 토론 중심 수업 계획에 대한 현장 적용에 따른 평가 및 피드백, 2학기 교과 재구성 및 공동 수업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은 키우며, 단점은 극복하도록 지원하여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이 함께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 aT, 청렴한 청년이 세상을 바꾼다

###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에서 지역대학생 대상 청렴멘토링



청년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의 청렴 토크쇼와 광주전남지역 소재 13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멘토로 취업정보와 입사경험담을 공유하는 취업멘토링 순서 등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소규모 유치원 원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와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로 실시해 오던 행사를 옮기는 유아의 창의 인성 함양 및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10일, 13일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

아산=리량주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aT 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렴’을 주제로 지역대학생 60여명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주 석송초 ‘개성 있는 나만의 화분 만들기’ 도예 체험 석송초등학교(교장 김영걸)는 지난 12일 공주온마을 교육지원원 1.0을 활용한 직업체험 및 농촌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금강아트센터 도예장을 초청해 도예체험장을 운영했다.



## 동정

## 정기총회



오세현 아산시장  
=16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체육회 이  
사회 및 정기총회  
에 참석.

## 학교장과의 간담회



가세로 태안군수  
=16일 오후 5시  
군청 종회의실에  
서 열리는 '초·  
중·고 학교장과  
의 간담회'에 참  
석.

## 운곡면 초도방문



김돈곤 청양군수  
=16일 오전 10시  
청양읍 초도방문  
후, 오후 4시 운곡  
면 초도방문을 실  
시.



## 배방읍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

아산시 배방읍의 주민자치를 이끌고  
갈 제2기 주민자치회가 꾸려졌다.

지난 12일, 읍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2  
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향후  
2년간 배방읍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주민자치위원 3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1기 주민자치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개개모  
집과 이장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지역대  
표, 직능단체,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  
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  
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2020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 선출 회의에서는 맹준  
호 주민자치회장이 재선출 되고, 박은자  
씨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맹준호 주민자치회장은 인사를 통해  
'이번에 새로운 위원들로 주민자치회  
가 새로 태어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  
로 배방읍의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의 화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지역사  
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결의  
를 다졌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약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휴대폰을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성대로 26-20 대전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http://www.daejeontoday.com)

##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로 '우뚝'

## 태안군,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오는 2020년까지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태안군이 추진하는 육아지원거점센터 '아이꿈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18 지자체 저출산 대응 사업' 공모 결과 태안군의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태안군이 추진하는 육아지원거점센터 '아이꿈터'는 육아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놀이장) 등이 한 곳에 들어서

는 시설로, 태안 문화예술타운 인근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연면적 1,800㎡ 규모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하반기 착공에 돌입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상담시설 및 영유아 프로그램 교육시설(교육실, 강당, 실내유아놀이터) ▲영유아 놀이시설(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전용 도서관) ▲출산·육아·보육 원스톱 통합지원 시설(가족카페, 시간체육실,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교실, 사무실) ▲아외 놀이시설(물놀이장) 등이 한 곳에 들어서

저출산 극복 관련 다양한 관련 사업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계획의 우수성 ▲추진의 지 ▲효율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주민체감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총 사업비 3억 원 중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센터 건립에 기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육아지원거점센터가 건립되면 통합된 육아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구증가 및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태안군이 대표적인 육아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육아지원거점센터 '아이꿈터'가 저출산 극복의 우수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 우/리/동/네



## 아산시 '4-H 야영대회' 추진

아산시 4-H연합회(회장 김민태)에서 주관하고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와 아산시 4-H본부(회장 이종대)에서 후원하는 아산시 4-H야영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청양 중의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4-H연합회와 학교 4-H 6개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햇불봉화식, 명령운동회, 샌드아트 공연, 짚라인 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야영대회에 아산시의회 김영애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4-H 관계자들이 참석해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줬다.

아산=리량주기자

##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요일 변경

## 당진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화~토요일 운영



당진시가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무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공립 작은 도서관 10곳의 운영 요일을 변경·축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립도서관에 따르

면 당진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고대 웃음꽃, 송악 해나루 작은 도서관 2곳이 주 5일 운영을 시범 운영해왔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나머지 8개 작은 도서관(원당 꿈초록, 송악 센터, 석문 생각나루, 대호지 책나래, 순성 반딧불이, 신령 거산, 신령 청소년, 송산 개미 작은 도서관)도 시행하게 됐다.

변경 사항은 운영 요일의 경우 화~토요일 주 5일 개관하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은 휴관한다.

운영시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하절기(3~10월)는 평일 10시~19시, 주말 9시~18시이며, 동절기(11~2월)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운영된다.

공립 작은 도서관 외에 시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합덕 도서관과 송악 도서관은 기존과 변동 없이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과 국가정 광주일만 휴관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작은 도서관 대신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과 가까운 미용실이나 카페 등에서 책을 쉽게 빌려 읽을 수 있는 틈틈이 도서관 6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틈틈이 도서관에 참여할 업소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당진형 주민자치 전국에서 주목

## 주민자치 관련 행사서 잇따라 우수사례로 소개

당진형 주민자치가 최근 주민자치 관련 행사서 잇따라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당진시는 13일 서울특별시와 지역재단 주관으로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지역자리더 대회에 참석해 주민세를 활용한 당진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호 주민자치 팀장은 주민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해온 주민주도형 자치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빌표에 따르면 올 해마다 증액(2015년 5,000만 원→2018년 3억 원)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읍면동 특화사업과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김 팀장은 주민세 활용사례 외에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를 소개해 마을단위 풀뿌리 주민자치 사례로 관심을 받았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도 사례로 꼽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은 읍면동 단위 아래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광장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당진시는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주최한 주민세 활용방안 관련 대토론회에서도 우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9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주관해 충북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정에도 참석해 우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어서 당진형 주민자치의 전국적인 확산이 지속될 전망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건강하게 아이

생각=정상범기자

## 아이와 소중한 만남 미리 준비하세요

## 청양군보건의료원,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전후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행복한 산모교실 &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

행복한 산모교실 & 모유수유 클리닉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센터에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부부가 함께 하는 임산부 요가교실과 건강한 아기피부를 위한 천연화장품 만들기가 있으며, 이와 함께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안내와 임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의료원에 일부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임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 논산시 해외관광객 유치 '속도'

K2H 해외연수 참가자는 논산 방문… 논산 가진 매력적인 관광자원 적극 홍보



## 공동방제 실시로 벼 먹노린재 박멸

### 부여군, 내 전체농지 대상 동시 공동방제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벼 먹노린재 품질과 수량에 큰 피해를 주는 먹노린재 긴급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읍면별 공동방제 신청농가들의 농지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편성된 공동방제단이 참여해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부여 관내 전체 농지에서 동시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먹노린재는 성충으로 낙엽 밑에서 월동 후 보통 6월 상?중순 경 이동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어 어린도에 1차적으로 흡즙해를 남기고, 2세대 약증이 6월 하순경부터 산란을 시작해 7월 중순 경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약 30배 이상의 개체 수증가가 우려되어 적기 방제의 중요성이 특히 높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월동성충의 본답피해가 발생한 만큼 긴급으로 추진하는 먹노린재 방제 효과가 좋을수록 등숙기의 피해저감과 다음년도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동방제가 처음으로 실시돼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기관들의 협조 하에 먹노린재 방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우리학교 워킹데이’ 인기 짱

### 논산시, 등굣길 활기찬 걷기 운동 ‘몸도 마음도 건강’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4일과 11일 강경산양초등학교와 강경 중앙초등학교에서 ‘우리학교 워킹데이’를 운영, 학생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우리학교 워킹데이’는 보건소와 학교가 협력해 등굣길에 운동장을 돌고 교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높여주고 학업과 컴퓨터 이용에 따른 척추측만과 비만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보건소 건강정책팀, 교직원, 건강대학교 스포츠 의학과 학생과 2인1조나 3인1조로 팀을 이뤄 진행하며, 스트레칭, 텁ப, 사방치기, 줄넘기, 훌라후프, 정검다리 건너기 등 걷기만 하는 운동이 아닌 재미있게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성장판을 자극시켜 아동·청소년기 키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며, “우리학교 워킹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등굣길 만들기는 물론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 재난재해지원봉사단, 정보 공유 시간 가져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1일 계룡시자원봉사센터의 ‘재난재해지원봉사단’이 계룡시 재난재해 예방과 각종 사건, 사고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계룡시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견학했다고 밝혔다.

‘재난재해지원봉사단’은 이날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재난재해 발생 시 센터의 역할과 주요기관으로의 전달체계 등을 살펴보고 계룡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는 관제요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과 더불어 계룡의 이용소방대 수호천사팀이 제공하는 재난재해 대응 교육을 통해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계룡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총 347대의 CCTV를 바탕으로 계룡시 관할 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문화재, 주요 시설물 등을 관제하는 기관이다.

K2H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국 공무원과 가족 24명이 13일 논산을 방문했다.

‘K2H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외 지역체 공무원을 초청, 지방 차자 단체에 4~10개월 동안 실제 파견 근무를 통해 양 지역 간 교류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사를 양성하는 초청 연수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선사인랜드를 비롯해 계백장군유적지, 탑정호, 관촉사 등 논산의 뛰어난 관광자원을 방문하고 논산의 저비용 고효율 키러콘텐츠를 즐기며, 논산에서의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션



시인’ 오픈 세트장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드라마의 뜨거운 인기를 실

감하며,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류문화를 직접 체감하기도

했다.  
시는 한류문화를 접목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병영테마파크를 활용한 논산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논산이 가진 매력적인 관광자원들을 해외에 적극 홍보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스터션샤인’ 논산촬영은 지난해 11월 연무를 일원에 개장한 선사인랜드 내 선사인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첫방영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홍묵 계룡시장= 16일 오후 2시 원대 2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생명사랑 행복마을 현관식 참석.

### 간부회의



박정현 부여군수= 16일 오전 8시 30분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 서천문화학당



노박래 서천군수= 16일 오전 10시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65 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참석, 오후 2시 서울시서천연수원에서 열리는 제198회 서천문화학당에 참석.

## 천안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인구교육 열려

### 부모와 자녀 100여명 대상 부모대상인구교육 버블체험활동 진행

천안시와 한자녀더 갖기운동연합 천안시지부(지부장 이봉방)는 12일 성거도서관에서 서북구 4개 읍·면지역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인구복지 협회 대전충남지회 유지우 강사를 초청해 ‘함께 가는 Happy Road’라는 주제로 부모대상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버블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봉방 지부장은 “부모가 10% 변화하면 아이들은 100% 변화하게 된다”며 “이번 교육은 부모들이 자녀와 소통하는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자녀들의 자아 존중감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오현 여성기족과장은 “천안시는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나아가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민성기자

## 서천군서 백제 최대 규모 제의관련 유적 확인

### 서천 봉선리 유적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학계 ‘주목’



충남 서천에 위치한 사적 제473호 서천 봉선리유적에서 백제시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천군(군수 노박래)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은 13일 백제시대 제의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역주민과 학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서천 봉선리유적 정상부에서 확인된 제의관련 유적은 평면 원형에 약 3개의 단으로 구성됐다. 북서쪽의 전면부는 암반을 굽착하거나 대지를 조성해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북쪽 사면부는 급한 경사를 모두 토축하여 단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됐다.

제의관련 유구로는 대부분 북서쪽의 전면부 평坦면에서 확인되고 초석 건물 3동과 점토로 조성된 유구 6기 등이 조사되었다. 제의관련 유적은 출토유물로 보아 한성기부터 사비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역주민과 학계 모두가 조사된 유적이 서천지역과 금강 하구의 문화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 4차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봉선리유적의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해 향후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국비지원과 서천군의 주도로 진행된 발굴조사는 현재까지 전시관 및 주차장 부지를 비롯해 제의유적이 위치한 텁방로 구역에 대해 총 4차례 진행됐다.

부대시설 운영계획, 주차 및 교통 대책 등 시·군 방문 선수단과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각 분야별 보고된 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하여 계룡시를 찾는 5,000여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고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열리는 제24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행복도시 계룡에서, 함께하는 김동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계룡시에서 펼쳐진다.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전략적인 실적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임사무 시군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추진 성과 등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제2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 열려

### 계룡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점검으로 성공 체전 개최 박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4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분야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회 개최 50여 일은 앞두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이번 보고회는 최홍묵 시장 주재 하에 안일선 부시장을 비롯한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준비상황 보고회에서는 흥보영상 시연회를 비롯하여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연출계획 보고 등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한 각 부서별 추진상황이 보고되었다.

특히, 안전관리 대책, 지원봉사자 운영, 개·폐회식 및 공개행사,

### “올바른 손씻기로 건강한 여름나세요”

#### 부여군, 손씻기 캠페인·해충 구제 일제소독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집단 식중독, 수인성 매개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11일 건강한 여름 나기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서동연꽃축제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군청 위원회들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올바른 손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여름철 아워활동 시 야생진드기로 인해 감염되기 쉬운 풀꽃가루증, SFDS 등 각종 질환 예방요령을 전중 향보했다.

특히 죽제 전 주민과 관광객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150여개 부스에 손소독제 210통, 모기 및 진드기 기피제 552통, 휴대용 실충제 210통을 미리 지원해 예방활동에 힘썼다.

또 지난 여름 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의 증가가 예상되어 16개 읍·면 436개 자율방역단과 당초보다 2주 앞선 7월 16일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장마철에 생긴 물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모기유충구제소독과 병행해 여름철 모기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건소 김갑수 과장은 “각종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과 수족구병, 급성 호흡기 감염증 등 대부분의 감염병은 철저한 손씻기로 손쉽게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스토 손씻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손씻기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와 방역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계룡시 위임사무 시·군 평가 추진상황 점검

### 평가 지표 분석·향후 실적 개선 방안 논의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일선 부시장 주재로 실·과장 등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2018년 실적)년 위임사무 시·군 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편된 130개의 지표를 분석하고 업무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계룡시는 이날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표는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월별 추진 상황 보고회 및 평가 전문가 및 품평회 컨설팅 실시 등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 전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제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만의 노하우…

정

시민과의 대화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 16일 오전 10시 월 송동을 방문해 시 민과의 대화를 실 시.

한화이글스 서산제2구장 준공식



맹정호 서산시장= 16일 오전 10시 한 화이글스 서산제2 구장에서 열리는 한화이글스 서산 제2구장 준공식에 참석.

재향군인회 상반기 성과보고회



문정우 금산군수= 16일 오전 11시 로 컬푸드 2층에서 열리는 재향군인회 상반기 성과보고 회에 참석.

금산군 여름 휴가철 쓰레기 집중수거



금산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쓰레기 집중수거에 밤 빛과 나섰다.

휴가철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해 행락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방지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수거, 악취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하천 쓰레기 수거정화사업 일부 17명을 유원지에 집중 투입해 피서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기 수거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는 2억9000만원을 투입 1,600여 명의 하천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해 영농폐기물의 하천 유입에 따른 수생태계 교란, 경관훼손 방지 등 광범위한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김정환기자

여름철 영농현장 이동농기센터 성료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갑작스런 기상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면한 영농현장 문제와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2일까지 운영한 여름철 영농현장 이동농기센터가 농민들의 큰 호응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센터는 3개 지구지를 중심으로 전문지도사를 편성해 16회에 걸쳐,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마을별 영농현장에서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여름철 돌발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등의 교육과 귀농귀촌 지원 정책 안내 등을 영농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했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산물유통 관리제도(PLS)에 대한 이해와 농산물우수 관리(GAP)교육을 병행하며, 인증회망농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농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안내하는 등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강상희 농업지원과장은 “이동농기센터는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농촌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농업정보제공은 물론,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태선 기자

# 부도임대주택 문제 최종 마침표

&lt;덕성그린시티빌&gt;

공주시, LH공사·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택 235세대 우선매수권 행사·낙찰 매입

공주시의 숙원사업이었던 부도 임대주택(공주시 관광2길 24-5, 덕성그린시티빌) 문제가 대전지방 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를 통해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6월 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5호 경매장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LH 공사가 법원에서 매각공고한 덕성 그린시티빌 임대주택 245세대 중 218세대를 낙찰 받은데 이어, 7월

11일 3차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17세대를 추가 낙찰 받았다 고 밝혔다. 이로써, 임차인이 매입에 동의한 235세대의 부도임대주택을 LH공사에서 모두 매입해 오랜 기간 불안에 떨던 임차인들의 주거불안문제가 최종 해결됐다.

LH공사에서 매입한 235세대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돼

공급될 예정이며,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종전에 임차인과 임

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불안 문제가 미침내 해결돼 입주민들이 보호를 받게 됐다”며, “이는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한 관계기관의 공조가 있어 가능했으며, 공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

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 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 대학생 학습지원단 본격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역 대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은 물론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여름방학 대학생 학습지원단 117명을 선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7월 째를 맞이한 학습지원단은 지난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 23일부터 8월 28일 기간 중 관내 초·중학교와 작은 도서관에서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대학생 학습지원단은 관내 12개 초·중학교와 작은 도서관 6곳, 총 18개 기관에 배치돼 국영수 등 교과목과 독서지도, 기초학습 등 학습지도를 하게 된다. 1일 3~4시간 최대 40시간 활동하며,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활동 종료 후 지급된다.

김경환 보건소장은 “올바른 손씻기 만으로도 대부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피서철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 기자



## 제21회 보령머드축제 머드체험시설 개장식

보령시는 13일 오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머드체험시설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제21회 보령 머드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개장식은 김동일 시장과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페스티벌이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머드샷 분출 퍼포먼스로 개장 세레머니를 펼쳤다.

다.

한편, 머드체험존은 머드광장에 대형머드탕, 해변슬라이드, 머드유수풀 등 12종, 시민광장에 머드슬라이드, 머드버블 등 6종을 운영하며, 주중(월~목)에는 성인 기준 1만2000원, 주말에는 1만 4000원이고, 청소년은 각각 1만원, 1만2000원이다. 20인 이상 단체 이용시 각

1천 원씩 할인 받을 수 있고, 보령시민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장애인(1~3급, 동반1인)은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시 30% 할인받을 수 있다. 트램카는 편도 2000원이며, 체험시설 이용 관광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령=김태선 기자

## 형식은 ‘줄이고’ 내용은 ‘키우고’ 회의 행사 ‘간소화’

맹정호서산시장, 행정혁신 시정혁신 과속도

서산시는 그동안 의례적으로 행해오던 각종 회의나 행사에서 형식적인 부분은 대폭 줄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더욱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는 맹정호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밝힌 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 등 3대 시정혁신을 통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옮기고자 했다.

인사부처에 따른 사령교부는 전결규정에 따라 6급 이상만 시장이 하고, 7급 이하는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정했다.

시는 우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 진행하던 간부회의를 통합해 매주 수요일 1회만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대간부회의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한편, 읍면동장회의도 월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또 외부기관 등과 이루어지던 의례적인 정기회의도 특별한 안건이나 주제가 없는 경우 형식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사부처에 따른 사령교부는 전결규정에 따라 6급 이상만 시장이 하고, 7급 이하는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존에 부모 및 가족 등과 함께 하던 신규공무원 임용식은 주인공인 신규공무원과 멘토공무원이 함께하는 행사로 변경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사령도 부시장이 하게 된다.

부부나 가족을 동반하던 사무관 임용식은 폐지하고 임용장 수여로 갈음하기로 했고 퇴임행사시 수여하던 공로패, 훈장, 배우자 감사패도 하나로 통합해 당사자 공로패만 수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행정혁신을 통해

시장 훈격의 각종 시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시상식은 하지 않고, 공적에 이적한 시민만 최소한으로 선정해 월례회의에서 시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전결규정을 개정해 읍면동장에게로 권한을 대폭 양하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추진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시민 참여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인 청탁금지법을 줄이고 의식 절차는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공식행사 이외의 각종 소규모 행사에는 시장이 참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시정 혁신사항을 점검하거나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겠다는 계획이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혁신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형식과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충실히 키우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도 보다 확대하고 대민행정을 펼치는 일선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전결규정을 개정해 읍면동장에게로 권한을 대폭 양하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추진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시민 참여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인 청탁금지법을 줄이고 의식 절차는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공식행사 이외의 각종 소규모 행사에는 시장이 참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시정 혁신사항을 점검하거나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겠다는 계획이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혁신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형식과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충실히 키우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 공주시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민선 7기 새로운 출발과 함께 취임 초 조직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의 역점·현안사업을 더욱 활발히 넘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7월 16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승진인사의 경우,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직렬 간 균형, 시정기여도, 조직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급 3명(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승진 임명하고, 5급 10명(행정 6, 농업 1, 녹지 1, 시설 1, 지도직 1), 6급 6명, 7급 3명, 8급 29명을 각각 승진 의결했다.

공주시 박용권 부시장은 “소통-

능력·책임의 자치행정 구현을 통해 신바람 나는 공주를 만들기 위한 민선7기 첫 정기인사”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일 잘하는 혁신시정 구현을 위한 소통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6급 이하 인사는 개인회망 보지 신청 및 부서장의 인사제청을 거친 후, 오는 7월 23일자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우/리/동/네

## 전국민 손씻기 캠페인 펼쳐

보령시보건소, 영유아수족구 등주의 당부

보령시보건소는 예년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식품매개, 호흡기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민 손씻기 캠페인을 지난 12일 대천해수욕장에서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 방법 6단계를 안내하고 교육 리플릿 및 스티커, 손소독제 등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며,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위장관감염증,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 5세 이하 유아이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 중에 있는 수족구병 ▲ 수해지역 또는 오염된 계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성 눈병이나 피부병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해외유입감염병 등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하절기 비상 방역을 시행하며, 감염병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 ▲ 수족구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위생점검 ▲ 경로당 및 취약지역 대상 손소독제 배부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경환 보건소장은 “올바른 손씻기 만으로도 대부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피서철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 기자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



## 오늘의 하이라이트

## ▲ 나도 엄마야(SBS 오전 8시 20분)



뒤 동철(이주현)이 갖고 있는 회중시계를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 ▲ 검법남녀(MBC 오후 10시 00분)



선을 보리는 임여사(윤미라)의 권유를 거부하는 상현(알렉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신회장(박근형)과 다시금 갈등하기 시작한다. 한편 지영(이인혜)은 고모네 집에서 만취한 상현과 마주하게 되는데...

## ▲ 피아파도야(KBS2 오전 9시 00분)

정태(정현)은 기전(반효정)과 육분(이경진)에게서 금괴가방 안에 있었다는 회중시계에 관해 들은

## 케이블 명화

## ▲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2(OCN 오후 5시 50분)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어드벤처! 아틀란티스는 진짜로 있다!!



며칠 전 범부터 어디선가 보내온 모스 부호.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단어 “핍, 조른, 스트릭스”는 짤 베른 소설 ‘해저 2만리’의 주인공들. 그리고 이어지는 신호는 이야기한다. “섬은 진짜 있다” 마치 암호처럼 스티븐슨의 ‘보물섬’,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가 단서로 던져지고, 세 개의 책 속에 등장하는 섬들이 어쩌면 같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세 개의 지도를 겹치니 나타나는 경도와 위도가 적힌 좌표!!

그것은 바로, ‘쥘 베른’의 주종자로 반평생 신비의 섬을 찾아 다닌던 할아버지가 보낸 신호였고, 2년 전 연락이 끊긴 할아버지를 찾아 신비의 섬으로 출발한다! 헬기를 타고 섬을 향해 가던 가족은 강력한 태풍을 만나고, 태풍의 눈에 들어가야만 섬에 갈 수 있다는데..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바로 아틀란티스! 비밀의 열쇠를 찾는 힌트는 바로 소설 속에 있다!



## ▲ 맨 인 블랙(채널 CGV 오후 8시 30분)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지대. 언제나 국경을 몰래 넘나드는 멕시코 난민들 덕에 국경지대 경찰은 늘 골치를 썩는다. 늦은 밤, 역시 멕시코 난민을 실은 차량이 넘어오고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려 할 때,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이 급히 다가선다. 검은 차에서 내린 검은 선글라스, 검은 양복, 검은 베타이, 검은 구두로 치장한 그들은 일급 국가 비밀 조직인 MIB(Men In Black). 그들은 온 몸을 블랙으로 치장한 채 지구에 장착한 외계인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미연방 일급 기밀 조직으로 그들의 임무는 지구인으로 위장한 불법 이민 외계인을 가려내는 것이다. MIB는 그들의 조직원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에게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다. 지금껏 이민 외계인을 감시하고 불법 기주자를 방어하며 평화를 성공적으로 지켜왔다. 한편 이민 외계인들은 철저히 지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놓고 있었다. MIB의 유능한 형사 K(Agent) K: 토미 리 존스 분은 은하계에서 날로 증가하는 지구 이민 외계인들을 감시하는 베테랑. MIB는 외계인들의 정체가 혹시라도 지구인에게 들어날 경우, 기억 말소 장치를 사용해 일반인들에게 철저히 외계인 추적을 방지하고 있었다.



##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 369-1090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굿모닝 러시아	6:00 MBC 뉴스투데이	6:00 SBS 뉴스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10 EBS 특별기 통찰
7:50 인간극장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50 밀과 거짓말	7:30 모닝와이드	6:20 최자영 시인 내인애 그대	7:00 경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뜨처
8:25 아침마당	8:00 KBS 아침뉴스타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8:30 나도 엄마야	6:30 메디컬 인	7:30 로보카 풀리
9:30 KBS 뉴스	9:00 TV소설 파도아 파도아	9:30 9월 MBC 뉴스	9:00 혼례운 말습	7:45 뾰통봉 풍 뽀로로	8:00 딩동댕 우수원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9:45 기분 좋은 날	7:30 열린마이어 시청자세상	8:25 메디컬 인	8:45 코코리 다니
11:00 UHD명품역사관 정비록	10:40 지구촌 뉴스	10:50 김법남녀	9:00 주정민의 스페셜토크	9:00 원더볼즈	9:00 라이브 토크 부모
11:50 UHD 송터	11:00 노도인간이니	12:06 12MBC 뉴스	10:00 희망나눔프로젝트 디딤돌	10:30 세계비결	10:30 세계비결
12:00 KBS 뉴스 12	12:07 트레킹 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2:20 김법남녀	11:00 김영진의 집대성	11:40 한국기행	11:40 한국기행
1:0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2:00 KBS 뉴스스타임	1:40 촉충우돌 만국유림기	12:00 SBS 12 뉴스	12:00 EBS 정오 뉴스	12:00 EBS 정오 뉴스
1:50 시너이토크쇼 황금연못	2:10 영화가 좋다	2: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12:50 2018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2:10 시대공감	12:10 시대공감
2: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0 자동공부책 상위기 2	3:05 사이언스 스타	13:00 노부노	12:40 지식채널 e	12:40 지식채널 e
3:10 역사저널 그날	3:30 TV 유치원	3:35 뽀뽀 모두 놀자	13:40 김현정의 집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4:00 사사건건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4:15 밀과 거짓말	14:00 김경진의 집대성	13:50 원더볼즈	13:50 원더볼즈
5:00 KBS 뉴스 5(수화방송)	4:45 살립하는 남자들	5:00 MBC 뉴스	14:0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4:00 미술팀 험파	14:00 미술팀 험파
5:30 동물의 세계	6:00 6시 내고향	5: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4:40 김경진의 집대성	14:30 브루미즈	14:30 브루미즈
6:00 6시 내고향	6:55 UHD 한식의 미음	6:10 생방송 오늘 저녁	15:00 주정민의 스페셜토크	15:00 모피와 친구들	15:00 모피와 친구들
7:00 KBS 뉴스 7	7:35 우리말 거루기	7:50 인형의 집	15:45 뽀뽀! 토·보니 하트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10 세계사 시간여행
7:35 우리말 거루기	8:25 내일 맑음	7:55 MBC 뉴스데스크	16:00 생방송 투데이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35 꼬마기사 마이크
8:25 내일 맑음	8:30 글로벌 24	8:55 셙션 TV연예통신	7:20 최자영 시인 내인애 그대	15:50 으르차차 아이쿠	15:50 으르차차 아이쿠
9:00 KBS 뉴스 9	8:55 제보자들	9:00 기름진 멜로	7:30 메디컬 인	16:00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16:00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10:00 가요무대	10:00 노도 인간이니	10:00 김법남녀	8:00 SBS8 뉴스	16:45 딩동댕 유치원	16:45 딩동댕 유치원
11:00 KBS 뉴스라인	11:10 안녕하세요	11:10 MBC 스페셜	9:0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16:50 방랑 요리바스	16:50 방랑 요리바스
11:40 다큐세상			9:30 기름진 멜로	17:00 정동경 토크	17:00 정동경 토크
			10:00 희망나눔프로젝트 동행	17:30 노보카 풀리	17:30 노보카 풀리
			11: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7:45 뾰통뽀통 뽀로로	17:45 뾰통뽀통 뽀로로
			11:30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	18:00 토·보니 하트	18:00 토·보니 하트
				18:20 토·보니 하트	18:20 토·보니 하트
				18:45 놀라운 유치원	18:45 놀라운 유치원
				18:55 출판의 달인	18:55 출판의 달인
				19:0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19:00 정동경 토크
				19:30 기름진 멜로	19:30 기름진 멜로
				19:45 희망나눔프로젝트 동행	19:45 희망나눔프로젝트 동행
				20:40 다큐오늘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20:50 세계 테마 기행

## 서산시, 야외 물놀이장 개장

쾌적한 운영 위한 만보의 준비, 다양한 부대시설 갖춰



서산시가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야외 물놀이장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5일간 운영한다.

한번에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은 지난 해 4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등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통해 야외 물놀이장이 온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후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획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10명을 선발해 평일은 6명

이상, 휴일과 휴가철에는 10명 이상을 배치한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차량 통제를 위한 안전구역(세이프 존)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이륜차와 자전거 운행은 물론 흡연과 음주를 금지도록 한다.

물은 매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결을 위해 바닥청소는 1일 2회 실시하기로 했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종합물놀이대, 파고리, 사워터널, 간이샤워장 등 웬만한 테마파크 못지 않은 부대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김종민 서산시 체육진흥과장은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바닥 개선공사를 마치고 시험가동과 완벽한 시설 정비를 실시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찾아 추억도 만들며 무더위를 날려 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검도팀, 단체전 우승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감독 임근배)이 지난 9일에 서 12일까지 4일간 청양군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하계 전국실업검도리그전’에서 9인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종합물놀이대, 파고리, 사워터널, 간이샤워장 등 웬만한 테마파크 못지 않은 부대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결승전에서는 청원시청과 2-2로 동점인 상황에서 1득점 차로 승리하며 극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천안시청 검도팀은 을해상반기 전국대회에 5회 출전해 단체전에서 준우승 2회, 개인전에서 준우승 1회의 입상성적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임근배 감독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줘 기쁘다”며 “남은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천안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민성기자

## 신성대, 세계태권도 평화봉사단 교육연수 및 발대식

평화봉사단 교육연수 주관대학 선정, 해외봉사로 국위선양 예정



세계태권도 평화봉사단(총재 이중근)의 ‘2018년 하계 제21기 세계태권도 평화봉사단(이하 평화봉사단) 교육연수 퇴소식 및 발대식’이 지난 12일 신성대학교 총장 김병국(총장 김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류전형과 실기 전형의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평화봉사단 단원들은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신성대 학교내 일원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연수를 마쳤다.

특히 국내외에서 큰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태권도 경호과에서는 무려 5명의 학생들이 이번 평화봉사단에 최종 선발되어 교육연수에 참여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 10여 명이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나서 연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세계태권도 평화봉사단 신동윤 사무총장은 발대식에서 “우리의 교육, 한류문화 전파 등의 봉사활동

을 펼치게 된다.

신성대는 이번 세계태권도 평화봉사단의 교육연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연수기간 동안 태권도 경호과 학과장인 한관상 교수를 중심으로 해외 태권도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태권도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연수에 필요 한 인적·물적 지원에도 협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내외에서 큰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태권도 경호과에서는

무려



## 대투 논단

## 강력 범죄 잇따르는 정신질환 탈원화 정책 실패했다



김현태 논설고문

"재벌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앞으로 치료감호가 끝나도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해 4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2017년 3월 조현병 치료를 받던 10대 소녀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 등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종합적 관리 대책 마련을 절박하다는 인식 아래 단행했다. "지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복지부)는 지난 해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이유를 보면 얼마나 정신질환에 대한 본질을 가볍게 다루는지를 일견해서 엊불 수 있다. 법 개정 이유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내세웠다. 여기에서의 핵심사항이 정신분야 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탈원화 정책이다. 그 명분을 세워놓고 정신보건 분야를 뒤흔들어 놓은 지 1년이 넘었다. 국민 불안감 해소는커녕 현

실은 정반대로 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법은 경증정신질환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순점이 여기에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경증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증이 중증되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인데도 말이다. 이런데서 비롯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바로 '탈원화'임이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인권을 강조해 정신질환자 스스로 하는 자의입원을 유도하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이른바 강제입원은 엄청나게 요건을 강화해 정신병원 입원대란이란 말이 생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들조차 입원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이지만 자아에 위협이 없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절대 불가하다. 한마디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진단의사가 돼버렸다.

여기다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를 또 받아야 한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받고 퇴원 명이 떨어지면 '자체 없이' 즉시 퇴원해야 한다. 치료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퇴원 후 갈 곳

없는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지속적인 투약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정신질환이 다시 악화되고 결국 길거리로 내몰리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데도 말이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 범죄증가"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출범 이후의 결과라는 지적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는 지난 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2016년 범죄백서'에서 엿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통계로서 2014년 6천301명이던 정신질환 범죄자가 2015년에는 7천16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고 한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1년 5천35명, 2012년 5천378명, 2013년 5천937명으로서 아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절도 1천749명(24.9%), 폭행 848명(12.1%), 상해 601명(8.6%), 살인 66건(0.9%)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신질환자 범죄 증절도, 폭행, 상해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의 사회경济적인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 칼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 '정지·유인·시비'... 농업용어라고요?

는 단어를 접하고 농업과 연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명을 곁들여 유심히 살펴보면 농업에서 쓰는 '정지(整地)'는 땅을 고른다는 뜻이고, '유인(誘引)'은 과일나무 가지를 잡아 주는 것을 말한다. '수도(水稻)'는 논에 물을 대서 짐을 빼는 데, '시비(施肥)'는 거름 주는 것을 이르는 농업 전문용어이다.

근래 농업기술 용어의 많은 부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한자어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이런 낱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고, 지금도 농업 교과서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 안타깝다.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여러 통로 중 공공언어만족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언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르고 통일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유인'이나 '시비'라

효율적 소통을 위해 어려운 농업용어를 쉽게 바꾸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본식 한자 조어가 많은 농업용어를 한글로 풀어 1971년에 '한글농업용어'를 발간했다. 이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을 빼고, 새로운 농업용어를 추가해 1982년에 '알기 쉬운 농업용어'를 다시 발간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증보판을 만들었다.

최근 2008~2016년 발간한 자료 6만 2000여 건을 대상으로 농업용어 사전에 들어 있는 5000여 개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했다. 이 결과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발간 자료에 들어 있는 낱말 가운데 쉽게 줄어 쓴 용어가 2003년 27%에서 2016년 57%로 증가한 것이다. 문현 특성상 범례집에는 여전히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농업 기술 설명서는 일반 국민이나 농업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쓰이고 있다.

적인 농업기술 설명서는 일반 국민이나 농업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쓰이고 있다.

농업 기술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삶까지 넓어짐에 따라 농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농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생산하는 막중한 역할뿐 아니라 그 존재 기반 자체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갖는다. 공공성을 갖는다는 말은 수익지가 온 국민이라는 말과도 통하기 때문이다.

올 8월이면 광복 73주년이자 정부 수립 70주년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일본식 농업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널리 쓰일 수 있게 일리는 일은 국민들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다.

## 사설

##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먹거리 철저히 준비해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도 1월 18일 '치안전망 2018'이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정신질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2012년 5,311명에 불과하던 정신질환자 범죄가 2016년에는 8,287명으로 증증했다. 탈원화 정책으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견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을 주도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각종 관련 정책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증가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바로 '탈원화'임이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인권을 강조해 정신질환자 스스로 하는 자의입원을 유도하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이른바 강제입원은 엄청나게 요건을 강화해 정신병원 입원대란이란 말이 생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들조차 입원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이지만 자아에 위협이 없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절대 불가하다. 한마디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진단의사가 돼버렸다.

우리는 1960년대 미국의 탈원화 정책이 범죄자를 양산했던 사회적 혼란과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한다. 합리적인 일본의 정신보건정책이나 중국연변의 재활 정책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자 금융기관의 정액수수가제도와 비인간적인 식대문제를 고민해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된 법과 정책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강력범죄 근절은 요원할 뿐이다. 현 대략 6만7천명에 달하는 입원환자들을 10% 이상 탈원화시켜 사회로 솟아져 나온다면 앞으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졸속 입법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전근대적인 정책이 과감히 달라져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길거리로 내모는 탈원화 정책은 위험천만하다. 조현병은 물론 정신질환은 꾸준히 평생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가운데 초등학생이 8만 2천명이고, 중학생은 1만 3,418톤에서 1990년 9,798톤, 2000년 766톤으로 급감하더니 2017년에는 겨우 1톤으로 급감했다. 꽁치 어획량 역시 1970년 5,036톤에서 2017년 757톤으로 97%, 도루묵은 1만 6,110톤에서 4,965톤으로 69% 각각 크게 줄었다.

반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멸치는 1970년 각각 3만 8,256톤, 5만 4047톤 잡히던 것이 2017년에는 11만 5,260톤, 21만 943톤으로 3배

넘게 늘었고, 살오징어도 7만 2,142톤에서 2016년 15만 5,743톤으로 늘어났다.

동해에서는 전갱이류 어획량이 1970년 21톤에서 지난해 2,373톤으로 1만 1200%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명태는 1만 4,111톤에서 지난해 1톤으로 100%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수온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를 보면, 한국 연근해 해역의 표온수온은 1968년부터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1.1°C 가량 올라 전세계에 비해 약 2.2배 높게 상승했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표온수온은 동해 1.7°C,

남해 1.4°C, 서해 0.3°C 상승했다.

동해와 남해가 서해에 비해 높게 상승한 편이다. 다만, 서해는 2017년 겨울한파로 평균 표온수온이 크게 떨어졌을 뿐, 이를 제외한 최근 49년 동안의 표온수온은 1.5°C 올라 동해, 남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연근해 해역의 어획량은 고등어류, 멸치, 살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명태, 꽁치,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은 감소했다.

실제로,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어획량은 1970

년 1만 3,418톤에서 1990년 9,798톤, 2000년

766톤으로 급감하더니 2017년에는 겨우 1톤으로

금증했다. 꽁치 어획량 역시 1970년 2만 5,036톤에서 2017년 757톤으로 97%, 도루묵은

1만 6,110톤에서 4,965톤으로 69% 각각 크게

줄었다.

반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멸치는 1970

년 각각 3만 8,256톤, 5만 4047톤 잡히던 것이

2017년에는 11만 5,260톤, 21만 943톤으로 3배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학생

가량이 이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특히 다문화 출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절실히.

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를 이중으로 구사할 수 있고 문화적 포용력을 가져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다른 외모와 말투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이들의 학업 중단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교우관계다. 저소득층이 많고, 부모가 한국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력도 떨어진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이 부처별로 헤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다문화 가족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으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이 나눠 있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도 우리 사회의 똑같은 일원이다. 자녀들의 가능성을 끌어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다.

다문화 학생도 우리 사회의 똑같은 일원이다. 자녀들의 가능성을 끌어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다.

다문화 학생으로 원하는 날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가져주기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척척세종' 종·고등학교 생활민원기동처리반(044-300-77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 척척세종,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여름 방학을 맞아 중·고등 학생 자원봉사자 20여명을 모집한다.

봉사활동 기간은 7월 23일 ~ 8월 2일이며, 신청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세종시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원하는 날짜를 신청할 수 있다. 1일 4시간 간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척척세종은 어려운 이웃의 주거관련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등을 점검·보수하는 기동처리반이다.

대상은 세종시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으로 원하는 날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민원과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044-

300-77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

# Disney English Reading Club과 함께하는 2018 여름방학 글로벌 원어민 영어캠프

- 원어민선생님과 함께 100% 영어로 캠프 진행
- KAIST 재학생들의 학습 멘토링 제공
- 체험학습 및 개인별/팀별 프로젝트 수업 진행
- VR(가상현실) 환상적인 영어 체험수업 진행
- 디즈니 명작들로 구성된 최고의 리딩 영어교재와
- EBS 방영된 “Disney English Reading Club” 교재 사용(겨울왕국, 라이온킹 등)

## 캠프일정 및 참가비

- 일정 : 2018년 8월 6일(월) ~ 8월 11일(토), 5박 6일
-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 장소 : 청양청소년수련원
- 참가비 : 850,000원(6월 30일한 조기등록시 10% 할인)

## 상담 및 접수

- 전화 : 010-3055-0664 / 팩스 : 042-824-8448
- 이메일 : car0664@naver.com
- 캠프 일정 및 내용 확인 : 대전투데이 홈페이지 ([www.daejeontoday.com](http://www.daejeontoday.com))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afe.naver.com/mnemo>
- 접수 방법 : 신청서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전화 접수 가능(선착순 60명한)



대전투데이



글로벌교육문화원